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0년도 표어 ☉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 (딤후1:1)

☉ 행동지침 ☉

- 1. 하나님의 전(殿)을 짓는 해가 되도록 한다.
- 2.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세기가 되도록 한다.
- 3.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새 천년이 되도록 한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오늘 2000 홍해작전 승전 감사예배

오늘 찬양예배 시 2000홍해작전의 승전보고가 있게 된다.

2000홍해작전은 "나의 사랑 서울교회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는 표어를 걸고 6일(화) 새벽 5시에 출발했다.

새벽마다 예배실을 가득 메운 성도들은 말씀과 찬양을 받고 나라와 민족의 갱신과 회복, 새 예배당 건축, 교회 부흥,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한국교회갱신연구원과 서울성경대학, 태신자 전도와 테마 전도, 각 가정의 자녀 등 7대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다.

한편 성도들은 ①하나님의 전(殿)을 짓는 해가 되도록 한다 ②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세기가 되도록 한다 ③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새 천년이 되도록 한다 등을 3대 행동강령 삼고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 감당하기 위해 새벽기도회 후 노방전도, 교회 주변 청소, 새 예배당 건축 현장 방문 등 전국 시민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새벽마다 주력 찬양대의 찬양이 울려 퍼졌고 강사인 이종윤 목사는 산상보훈 강해를 통해 이번 홍해작전의 주제와 표어에 따른 메시지를 선포했다.

19일(월)에는 표어에 맞추어 온 교회가 작전에 함께 하기 위한 당감일로 정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마지막 날인 오늘(25일) 새벽기도회 후엔 모세선교회 후원으로 옥탑층에서 떡찬치를 통해 승전을 감사하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매일 새벽 배부된 그림 조각(피즐)은 새 예배당 모습을 완성하여 오늘 승전 감사예배시 모두 갖고 와서 새 예배당의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시간을 갖는다.

하반기 교구일꾼 임명식... 다음 주일 예배 시

새 예배당 시대를 앞두고 우리 교회 교구위원회(위원장 김영준 장로)는 교구 조직을 새롭게 하고 새 출발을 하기로 했다.

이번 새로 개편되는 다락방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① 가급적 현재 조직을 우선한다 ② 조직은 교구장, 다락방장, 부다락방장, 간사(2명)으로 한다 ③ 지역개념을 넘어선 조직도 가능하다 ④ 혼란받지 않은 자 중 부득이 다락방을 맡

을 경우엔 서리제도를 도입한다 ⑤ 가급적 3-5 가정으로 다락방을 조직한다 ⑥ 남자 성도를 위한 다락방을 별도로 조직한다 ⑦ 다락방 명칭은 교구-①, 교구-② 등으로 한다.(예컨대 1교구 3다락방일 경우 1-③으로 표기한다)

교구일꾼 임명식은 다음 주일 I,II,III부 예배시 열리며 다락방장 공부는 7월부터 매주 수요일, II 예배 후 이종윤 목사에 의해 진행된다. 교구별 모임도 교구 목사와 함께 갖는다.

찬양대원세미나 30일(금) 개최

2000년 찬양대원세미나가 30일(금) 오후 6시부터 9시 30분까지 교회당에서 열린다.

세미나는 6시부터 옥상 식당에서 찬양대 연합으로 저녁식사 시간을 갖고 7시 2층 예배실에서 이종해 찬양과 예배를 드린 후 시작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교회음악의 목적"(하재은 연대 교수)와 "찬양의 실제"(김선일 임마누엘찬양대 지휘자)가 다루어진다. 이어 연합기도회가 고경선 목사의 인도로 이어진다.

다음 주일은 맥추감사절

다음 주일(7월 2일)은 2000맥추감사절로 지킨다.

우리 교회에서는 다음 주일 낮 I·II·III부 예배 시에 성찬예식을 거행하며 맥추감사헌금을 드린다.

교회학교에서는 부서별로 집회 시간에 다채로운 축하행사가 열린다.

또한 저녁 찬양예배시간에는 유아·유치·유년·초등부 어린이들이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 온 율동과 노래로 축하 행사를 갖고 맥추감사절의 절정을 이룰 예정이다.

2000년 농촌전도대 8월8일 파송

올해 농촌전도대는 8월 8일부터 11일까지 경북 예천 소재 상리교회에서 전도와 봉사 활동을 펴기로 했다.

전도위원회는 이와 같이 2000년 농촌전도대의 일정과 봉사 지역을 정하고, 파송할 농촌전도대원을 모집하고 있다.

특히 대원 구성은 약40-45명 정도로 정예화하여, 농촌 지역에서 효과적인 전도와 원활한

봉사를 펴기로 했다. 봉사 분야는 전도와 교육, 찬양, 의료(양·한방), 이·미용, 기타 노력 봉사 등이다. 이 중 교육 분야는 청년부에서 5명과 대학부에서 10명, 찬양 분야는 약 5명 내외로 구성할 방침이다.

이번 주부터 농촌전도대에 직접 참여할 청장년 성도들이나 물품과 금전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성도들은 사무국으로 신청하면 된다.

- ▲ 필요물품=교회지부 보수 자금(50만원), 화이트보드 칠판 1개, 기도 방식, 교회 바닥 우드림(25평), 강대상 마이크(2개), 마이크 스탠드(탁자용 1개, 긴 것 1개), 어린이 찬송가(30권), 식탁(15개), 아동용 티셔츠(40벌), 아동간식(40x3회), 주민초청잔치(50명x3회), 전도용부채(300개), 돋보기(100개) 등

▲ 상리교회=경북 예천군 상리면 도촌리에 소재한 교회로 장년 8명, 중고등부 6명, 유초등부 13명 등 27명의 성도들이 교회와 지역의 부흥을 위해 열심히 전도와 봉사, 헌신을 하고 있다. 목회자는 천광훈 전도사.

제자의 도 ⑧

열매없는 무화과 나무

마가복음 11:12 - 25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 잎사귀 외에 아무 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종운 목사

성경에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면 항상 좋은 결과를 생각합니다만 본문에서의 기적은 오히려 저주가 일어난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도 나타냅니다.

1. 위선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나무 가운데는 열매가 없는 것도 있고 열매를 맺지 않고도 사람들로 부터 사랑을 받기도 합니다. 무화과나무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고 위선, 거짓, 의식을 나타냈기 때문에 저주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잎사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었다가 베다니로 가서 쉬시고 그 다음날 길거리에서 본 무화과나무의 모습이었습니 다. 이때가 유월절이 가까운 때라고 했으니 4월경이 될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 본래 6,7월경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보신 때는 열매를 맺기에는 아직 이른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때에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하셨습니다.

식물학자들에 의하면 무화과는 잎사귀가 나기 전에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잎사귀가 있다는 말은 이미 열매가 맺혔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의 잎사귀만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그 나무에 저주를 내리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마치 열매가 있는 듯한 잎사귀가 예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사람 가운데도 이와 같이 안과 겉이 다른 표리부동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살이는 걸러 먹으면서 약대는 통째로 삼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도 한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과 같이 의식하는 자들이라고 저주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라고 칭하는 내가..." 라고 하면서 저들을 저주하며 저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고 했습니다(롬 2:17 이하).

선을 가장한 위선자, 악을 감춘 의식자들이 이 세상에 득실거릴 때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 저주를 내리신 것처럼 이 사회에도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2. 유명무실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사람이나 물건은 모두 자기의 이름 값을 해야 합니다. 포도나무는 포도열매를 맺어야 하고 무화과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옳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나무는 하나님의 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름은 그럴듯한데 이름에 걸맞은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인간은 또한 자기의 자리 값을 해야 합니다. 무화과나무는 길가에 심겨어져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는 자리에 어울리는 기대와 약속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민족, 국가, 사회, 가정, 교회 안에서 우리는 자신이 있는 자리의 자리 값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분한 자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 하면서 일꾼으로 부름 받은 자로서 주어진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지 못한 것을 크게 회개해야 합니다. 충신은 항상 자신의 불충을 생각하지만 간신은 항상 자신이 충성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3. 신앙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

예수님의 저주를 받은 무화과나무는 뿌리로부터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이를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묻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리라는 것은 누구나 논리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3절). 비록 자기에게 손해가 온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착실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죄는 그대로 마음에 두고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를 해봐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물리치십니다(사 1:15).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회개한 자의 깨끗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서 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람의 인일과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오늘도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음시키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 산이 뿔혀서 바다에 던져지는 기적도 일어나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진실해야 합니다.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은 찾고 계십니다. 위선자는 득세하는 것 같으나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의식자는 무화과나무처럼 기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유명무실한 자는 결국 밖에 던져져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름에 합당한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구한 대로 받고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홍해작전 승전보고

자기 갱신 이룬 영육 전쟁

정병무 (장로, 홍해작전 참모장)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어김없이 6월6일 명령을 기하여 홍해작전 개시의 명령이 우리 서울교회 십자가 군병들에게 떨어졌다.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사랑 서울교회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렁찬 주제와 표어 제창으로 천성문을 두들겼고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주옥 같은 산상보훈의 말씀으로 20일 간의 대장정을 진군했고, 이제 승리의 개가를 높이 부르며 뜨거운 감사와 감격의 용광로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3대 행동 강령과 7대 기도 제목은 함께 가는 우리 서울교회의 현 위치를 확인하는 포성이 되었다. 이 영육간 전쟁으로 우리는 스스

로의 영성을 점검했고, 또 새롭게 다짐하는 자기 갱신의 장이 되었음을 확신한다.

팔순의 노구를 아랑곳하지 않고 원근 각처에서 달려오는 노익장을 바라 보고 교회에서 밤을 지새우며 작전에 빠질세라 앞 자리를 채우시는 권사님들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우리 서울교회의 저력을 찾을 수 있었다.

엄마의 품속에서 꽃발을 수놓으며 꿈속을 헤매이는 유아부 아들, 아빠의 어깨를 침대로 삼아 마치 성령에 취한 딸... 끈히 잠든 자녀를 업고 안고 달려오는 젊은 부부의 모습은 과연 천국에서 받아쓸 면류관을 그려보기에 충분했다.

어느 새가족 가정은 먼 곳임에도 마다않고 처음 참여하는 홍해작전에 갈급한 심령으로 승합차를 급구하여 날마다 카풀로 달려나와 풍성한 천국 잔치에 참여했다. 옥상 스카이라운지에서는 날마다 헌신하는 귀한 손길을 통해 봉사의 나눔의 장이 열렸다.

날이 거듭될수록 승전고는 더 크게 울려 퍼졌고 운집하는 참전용사의 수는 늘었다. 두려워 홍해에 빠진 사람도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게 했다. 가나안 복지는 점점 가까이 보여 가슴을 설레게 하였다.

예정된 20일간의 작전은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막을 내렸다. 이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좇아 순종하는 삶으로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며 새생전 시대를 예비하는 우리들이 모두 되 어지기를 아버지께 간구드린다.

“승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영광을 주께 돌려 더욱 풍성한 내년을 기약합니다”

홍해작전참가기

나의 사랑 서울교회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2000년 새해 처음 맞은 홍해 작전은 무엇보다 서울교회의 새 예배당 시대 앞두고 한층 한층 올라가는 새생전 건축을 바라보면서 진행하고 있어서 의미가 큼니다.

말씀과 기도의 홍해 작전 기간 중 목사님의 산상 보훈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끓여준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고 갈한 목이 시원케 되는 큰 영적 성장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 받고 사막에서 생수로 갈증을 해소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모세 선교회는 “주께서 내 곁에서 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딤후 4:17) -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에게 건강이 주어지는 한 나라와 의를 위하여 모이면 기도하고 헤어지면 전도하여 하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생전에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한 것처럼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의 자세로 그리고 모세가 자기 백성의 죄를 인하여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한 그 심정을 가지고 7대 기도 제목과 놓어준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사랑 서울교회’ 여러 성도들과 함께 일어나서 홍해를 건너 승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강 건너 대적과 싸워 이기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두영(집사, 모세선교회장)

“아저씨, 논현동 영동시장이요 빨리좀 가주세요!”

새벽을 깨우기 보단 새벽이 나를 깨워 멍한채 무조건 교회로 갑니다. 작년 홍해 작전 때 귀한 은혜를 받은 터라, 이번 역시 받고 건너리라는 희망을 안고 갔습니다. 하루, 이를 계속된 홍해 작전 중 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위가 갑자기 멈춰버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위가 온통 혼란스럽고 여기저기 상쳐되는 일들만 생겼습니다. 홍해 작전 시작 무렵부터 가까운 이들이 병들어 아프고, 다치고, 지쳐 절망 가운데 빠지고... 정말 짧은 시간 동안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중 작은오빠가 입원한 병실에 갔다가,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이 내 일임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골똥히 드렸던 기도가 저만을 위한 기도였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조용한 곳을 찾아가 한참을 울며 기도 했습니다. 모세의 거룩한 기도는 할 수 없었지만 정말 아픈 심령으로 사랑하는 지체들이 일어나 함께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이런 마음들이 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간의 부족한 모습들이 다시 한번 느껴 집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며 날마다 홍해를 건너길 소원합니다.

이번 홍해는 그랬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오기를 원하셨습니다. 내년 홍해는 어떠한 홍해를 건너게 하실지...

김성실(청년부)

저는 대학부 소속으로 현재는 백두산 부대에서 대대 군중병으로 군 복무중입니다. 저는 이번 말년 휴가 중에도 홍해작전이라는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군에서 반석교회와 샘물교회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샘물교회는 너무나 오래되어 낡았지만 보수 비용 때문에 그동안 방치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적절한 때에 서울교회 군복음후원회에서 후원금을 받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샘물교회는 교회라기보다는 창고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리창도 없고 건물벽 페인트는 세월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조금씩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건물 벽 틈새는 벌어져 비가 오면 그대로 빗물이 새어 나왔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예배 환경이었습니다.

우선 저는 눈에 보이는 교회 외벽 페인트칠을 시작했습니다. 갈라진 틈은 매우고 샘물교회라는 작은 간판도 달았습니다. 의자에는 니스칠을 하고 망가진 것은 고쳤습니다. 창문에는 아스테이지를 대어 비를 막았습니다. 일주일 간 3명의 형제들과 함께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인락하게 믿음의 형제들이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군중병들의 숙원사업이었고 저로서도 마지막 과제였던 이번 공사로 부대내에서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의 도움에 손길에 매우 고마워합니다. 이번 홍해작전을 기해 이번에 작은 군 교회에서 이룬 작은 승전보를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조남현(대학부, 군복무중)

2000 홍해작전

산상보훈 노트

-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기도는 자기 죄를 시인하는 기도요, 회개를 재촉받은 자가 드리는 기도요, 하나님께만 죄 사하심의 권세가 있음을 고백한 기도요, 어떠한 죄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한 기도다.
- 금식은 개인의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인격적 관계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금식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 뜻의 계시가 상으로 주어질 것이다.
- 누가 내 소유물의 주인이신가

-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또 돌보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요. 염려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오는 습관을 갖자.
-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이끄는 좁은 길이며 그 위에 우리의 인격의 집을 지어야 할 반석이다.
- 산상보훈을 연구하는 이유 중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시하기 위한 것이다.
- 예수는 교사로서, 복종을 요구하는 주로서, 용서할 수 있는 권세와 죄인의 구주로서, 심판 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써, 하나님으로서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다.

오늘은 6·25 동란이 일어난 지 50주년이 되는 주일이다. 기록적인 비극을 남긴 채 종전도 안된 휴전의 시간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사람들은 전쟁이 끝났고 더 이상의 위기는 없다고 말하지만 지금도 휴전선은 살아있고 남북의 대치상황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의 가슴 속에서 특히 젊은이들의 마음 속에 6·25는 철저히 잊혀져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의 사건에 불과해지고 있다. 이들에게 전쟁은 영화 속에서 보고 즐기는 오락물일 뿐이며 실제적인 참혹함과 비극에 대해서 무지하다.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냉혹하여 우리의 의식 속에서 전쟁을 무시할 수 없고 또 다른 대비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우리의 선조들이 피와 땀과 목숨을 바쳐 이룩해 놓은 조국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50년 전 전쟁의 결과로 남겨졌던 많은 고아와 과부와 부상자가 아직도 생존해 있다.

가족을 모두 잃은 경우도 허다하며 전몰자의 유해는 국립묘지와 전국 방방곡곡에 묻혀 있다. 그 고귀한 터 위에 지금 내가 서 있고 우리 후손이 살아갈 것이니 오늘날이라도 지극히 적은 마음일지언정 할애하여 그 고난과 아픔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평생 국립묘지에 한번도 안 가본 사람이 허다하다고 한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작은 나들이 행사에 인색할 수 없다. 정부의 고위직 인사들은 형식적으로라도 국립묘지를 찾는데 우리는 그조차 무관심해 온 것은 아닐까?

무명인의 입장에 서서 작은 장미 한송이를 들고 무명 용사의 묘소에 바치면서 고인을 생 각하는 충동이 일어나야 하겠다. 큰 어른들은 크게 애국하지만 우리 소시민들은 나름대로 애국심을 표현하는 정성이 용솟음쳤으면 좋겠다. 그것이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을 원치 않는다는 우리의 각오와 결단의 표현 방법일 수 있고 간절한 소원이 될 수도 있다.

6.25 잊혀진 그날

6.25 잊혀진 그날

김광신(장로)

시 예배당 건축소식

24일(토) 6층 바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완료했다. 건축위원회(위원장 오정수 장로)는 성도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헌신을 부탁했다.

미국 호우톤 아카데미와 자매결연

우리 교회는 미국 뉴욕주에 위치한 호우톤 기독교 학교와 자매 결연을 했다.

호우톤 학교는 120여년 전 기독교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건실한 학교로 초등, 중등, 고등 그리고 대학 과정까지 있으며 세속화 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자녀 교육의 좋은 본을 보이고 있는 학교다.

동정

- * 이번 주 식사는 김병숙 권사, 강석우·나연신 집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 * 임마누엘찬양대는 26일(월)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회 및 현장방문을 한다.
- * 정성국 전도사(성기원 성도)는 27일(화) 유학차 도미한다.
- * 바울선교회·마리아전도회는 7월 1일(토) 70인전도대 주력부대로 활동한다.

환영합니다, 새가족 여러분!

오늘 찬양예배시 새가족을 환영하는 순서를 갖습니다.

* 초청된 새가족*

송은영 박해영 정수미 박명철 엄숙자 장인숙 최청운 김선미 김경숙 김희수 이해련 박승욱 김경희 이운주 최 진 반영환 차인혜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

주님, 이 생명을 구원에 주옵소서!

2000년 태신자 명단

전도자	태신자
70인 전도대	이성민 김부영 김진미 이영숙 강승현 임치정 김영만 김지은 장혜순 김소라 김선경 김태경 최중수 한종열 박현정 최용자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을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찬양대원과 하반기 교구일꾼들을 위해
2.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해
3. 각 부서의 여름행사를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의

구분	시 간
주 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 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회	오후 9시
새 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30분

↑ 교외약도

